

국토탐사활동*

한 승 희**
노 혁

- I. 국토탐사활동에 관해서
- II. 아름다운 나라
- III. 시간의 나라
- IV. 번영의 나라
- V. 그윽한 향기의 나라
- VI. 꿈의 나라

I. 국토탐사활동에 관해서

국토는 국민의 생활터전이다. 국토는 국민 모두가 숨쉬는 장소이며 민족정신이 깃들어 있는 실재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땅이다. 우리는 한 나라에서 태어나 살다가 그 곳에서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듯 국토는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를 포용하고 있는 소우주이다. 국토는 단순한 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토는 그곳에서 숨쉬고 호흡하는 사람들 모두와 자연환경 그리고 역사와 문화 전체를 뜻한다. 그래서 국토를 알고 탐사한다는 것은 나라의 역사와 지리뿐만 아니라 문화

와 풍습과 생활 나아가 민족의 정신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처럼 국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들에게 국토를 깊고 넓게 알리고 느낄 수 있도록 국토를 탐사하는 일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 탐사의 방법은 주로 국토를 종단하거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산업시설을 방문하는 등 매우 제한된 주제와 시각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물론 매우 필요한 방법과 과정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토를 기본적인 철학과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알고 탐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국토탐사활동 프로그램은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를 역사라는 시간적 관점과 사회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공간적 배경을 축으로 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크게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스

* 이 논문은 본 개발원의 1993년도 연구사업인 「국토탐사활동」을 요약한 것임.

**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한승희(연구위원), 노 혁(선임연구원)임.

스로 인지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자연 등을 호흡하고 느낌으로써 국토에 대한 애정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게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국토의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축으로 놓고 그 속에서 공간 의미와 내용을 펼쳐나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름다운 나라 : 지리탐사

시간의 나라 : 역사탐사

번영의 나라 : 산업탐사

그윽한 향기의 나라 : 문화탐사

꿈의 나라 : 미래탐사

위의 5개의 영역을 시간별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그 안에 16개의 주제로 국토의 정신과 의미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탐사로와 내용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의 탐사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활동을 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를 탐사하는 일관된 의미와 철학을 가지고 다양하게 탐사하는 하나의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국토 탐사의 방법이 제기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의 창의적 관점에 따라서 멋지고 흥미로우며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아름다운 나라

국토는 땅으로 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 땅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땅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매일매일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역사의 모습을 공간 속에 남긴다. 지

리 즉 국토의 이치와 참모습을 이해하는 일은 국토탐사의 기초적인 과제이며 단순하지만 흥미로운 활동이다. 우리의 땅이 어떤 모습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땅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 준다.

1. 태고의 신비 - 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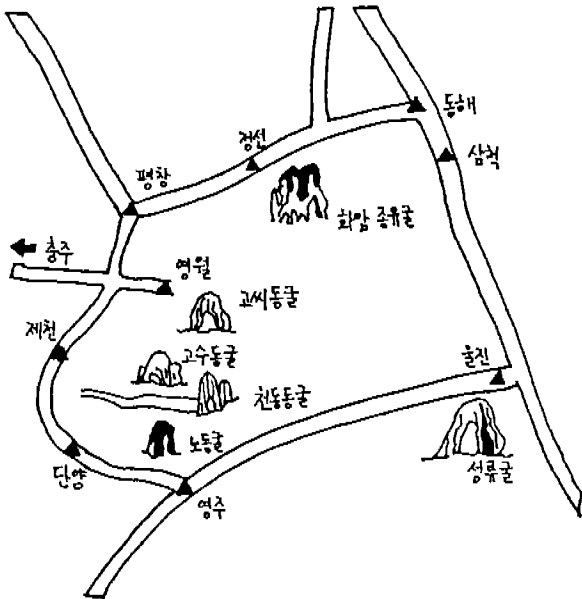
신비한 지하세계인 동굴은 우리 조상들이 생존해 온 흔적을 간직한채 경이로운 모습과 조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생성지역의 지질이나 환경 때문에 각기 다른 모양과 형태를 띠고 동굴속의 지형물이 만들어 내는 지하경관은 때로는 웅장하고도 화려한 지하궁전의 모습으로 때로는 좁고 험악한 산골짜기와도 같은 모습으로도 펼쳐진다. 지금은 선조들의 숨결만을 간직한 채 삶의 터전의 일부였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한때는 그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음을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달 없이 전해주고 있다.

가. 목 표

자연현상에 의해 형성된 동굴 속 지형지물의 신비로움과 조화로움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지질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게 한다.

나. 탐사로

고수동굴 - 노동굴 - 천동굴 - 고씨굴 - 화암굴 - 성류굴



(1) 특 징

자연동굴은 생성원인에 따라 석회동굴, 화산동굴, 해식동굴 등으로 세분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발달된 석회동굴만을 제시한다. 종유석, 석순, 종유관 등이 이루어 내는 장관을 통해 지하세계에서 빚어낸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다.

(2) 주안점

동굴이 형성된 생성원인 즉 그 지역의 지질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동굴속의 2차 생성물인 지형지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2. 무한한 보고 - 천연보호구역

산이 높고 언덕이 많고 물이 아름다운 나라 넉넉하고 푸근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던 우리 국토. 그러나 유구한 우리의 역사만큼이나 같이 몸부림 쳐야 했던 우리 국토였다. 때론 황폐해지기도 했었고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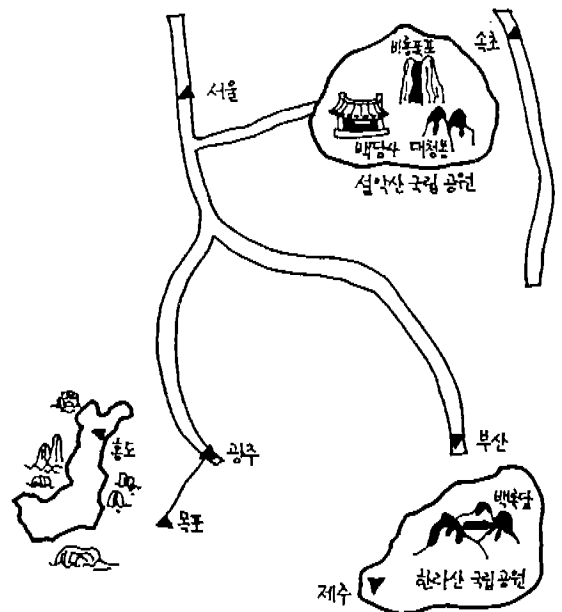
이 일그러지기도 해야했던 순간들도 겪어야 했었다. 이런 소용돌이쳤던 시간의 흐름속에서 아직도 그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채 과거의 숨결을 뿜어내는 천연의 지역들이 남아 있음은 하나의 희망이며 큰 기쁨이다. 비록 스스로 지킬 힘을 잃고 보호구역이 되어 있지만...

가. 목 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잘 간직해온 지역을 탐사해 봄으로써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고 동시에 자연 보존의 중요성도 일깨울 수 있게 한다.

나. 탐사로

홍도 - 한라산 - 설악산



(1) 특 징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일정한 구역을 선정하여 지정되는 천연보호구역은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중 서로 다른 지질과 기후로 특이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 세 군데만

제시한다. 가능하면 이 지역들을 서로 비교 탐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짧은 일정보다는 충분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 주안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된 이유를 염두에 두고 특색 및 특징을 살펴보고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게 한다. 그리고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자연 보존의 중요성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한다.

3. 산, 강 그리고 도시와 촌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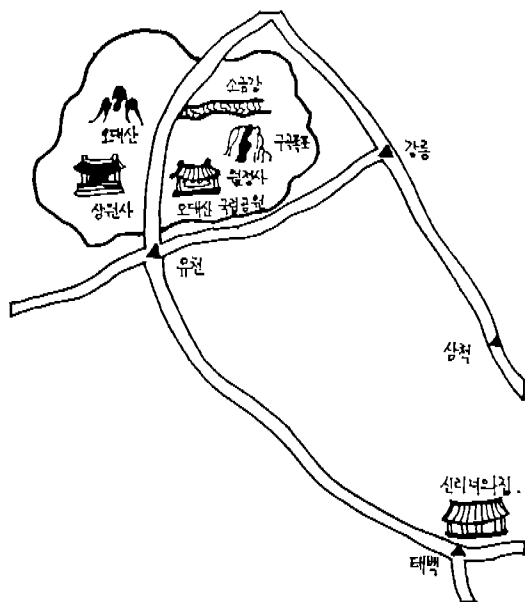
산이 있고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따라 산자락 기슭엔 마을이 펼쳐진다. 끝없는 벌판 황량한 대지 저 멀리 지평선이 그려 지는 서양의 풍경화와는 아주 대조적인 우리 산수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 국토를 울타리처럼 두르고 있는 산은 자연적 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심리적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청산에 살어리랏다—처럼 산과 물이 있으면 자족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었다. 자연과 인간과의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는 삶을 펼쳐나갔던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었다.

가. 목 표

우리 국토의 지리적 기본구조의 원형인 산과 강 그리고 촌락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토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돕게 한다.

나. 탐사로

오대산 - 소금강 - 강릉시 - 신리너와집



(1) 특 징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산과 강을 끼고 촌락을 형성했었다. 산에 의지하고 산의 기에 겸손해 하면서 그들의 생활의 터를 닦아 나갔었다. 이런 모습은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대산을 중심으로 탐사로를 제시한다. 지리적 조건에 의해 특수한 형태로 발달된 가옥형태나 취락형태를 살펴보면서 지리적 조건과 생활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 주안점

산과 강속에 어울려 자연과 같이 호흡하며 살아왔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한다. 특히 신리너와집유물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았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단순한 눈으로 보기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Ⅲ. 시간의 나라

국토속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역사를 만든다. 고대사회에서부터 출발하여 중세·근세·근대사회로 발전해 나오면서 국토 곳곳에 남기어진 흔적은 우리에게 과거의 모습을 밝혀준다. 국토를 시간선상에서 탐사해 보는 과정은 과거를 재인식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과정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와 우리의 미래를 인지할 수 있게 해 준다.

1. 역사의 터—고대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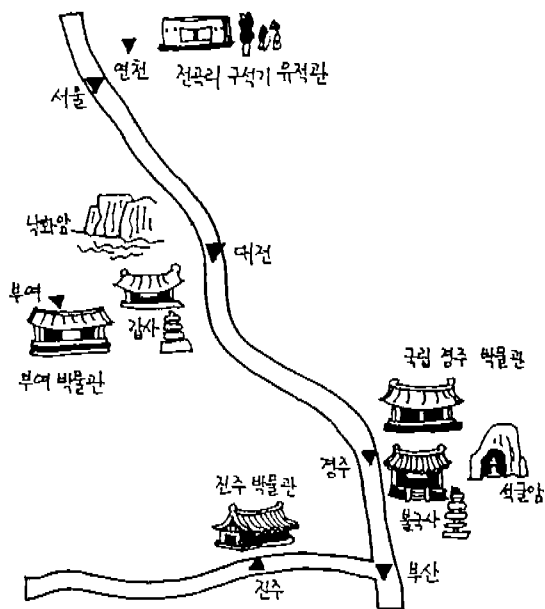
오늘은 과거에 기초한다. 우리 삶의 뿌리이고 우리 문화의 기원인 고대사회 생활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존재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다. 고기잡이와 사냥 채집을 주로 하면서 무리생활을 하다가 점차 강가나 해안에서 움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하게 되자 국가체제를 형성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나뉠대로의 문화를 꽃피워 나갔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화합과 경쟁속에서 발달된 삼국문화는 통일 신라시대에 이르러 고대문화의 완성을 보게 된다.

가. 목 표

구석기 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고대사회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의 뿌리이자 우리 문화의 기원인 고대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탐사로

전곡리구석기유적관—갑사·낙화암·부여박물관—진주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불국사·석굴암



(1) 특 징

구석기 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대사회의 생활과 문화를 가장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박물관 중심으로 탐사로를 제시한다.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시대 이후 고대사회가 완성되는 모습의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다.

(2) 주안점

유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탐사지만 유물에 남기어진 각 시대의 제도, 풍습, 문화를 읽을 수 있게 한다. 특히 역사의 현장이나 문화재 답사시는 사건의 배경이나 문화의 근원부터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한다.

2. 홀로 크는 아픔—고려

새로운 사회는 항상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면서 탄생, 성장해 나간다. 고대사회의 찬란한 문화만큼이나 누적됐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새사회 발전의 주체세력으로 호족들이 등장하면서 고대사회의 문은 서서히 닫히고 중세사회로의 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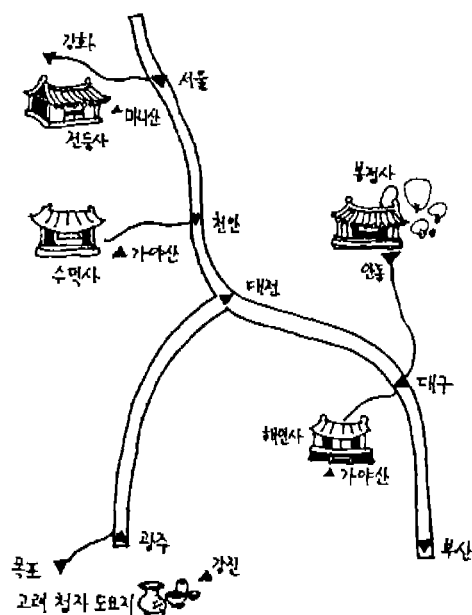
들어서게 된다. 호족세력들이 통합되어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되면서 문벌 귀족사회로 발전하는 고려가 등장한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결과는 진취적 기상과 활발한 문화교류로 문화의 폭이 크게 확대되어 세련된 문화를 꽃피우지만 장기간에 걸친 외세의 침입에 항쟁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킨다.

가. 목 표

문벌귀족사회의 성격을 띠고 발전했던 고려시대의 문화 특히 불교문화를 살펴봄으로써 고려인들의 생활상과 역사의식을 느끼고 이해하게 한다.

나. 탐사로

전등사—수덕사—고려청자도요지—해인사—
봉정사



(1) 특 징

호국불교정책으로 외침마저도 불교의 힘으로

막고자 염원했던 고려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고려시대 귀족문화의 대표적인 예술품인 고려 청자의 세련미를 찾아 볼 수 있는 탐사로를 제시한다. 진취적 기상으로 출발했으나 장기간에 걸친 외침속에서 자주성에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불교의 힘으로 헤쳐 나가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다.

(2) 주안점

외침속에서도 호국을 염원하며 그 힘들고 오랜 과정을 대장경 조판에 기울였던 고려인들의 자주성과 끈기를 느껴볼 수 있게 한다.

3. 끊임없는 지킴—조선

고려말기의 사회혼란과 타민족의 침략이 계속되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이 주축이 되어 개혁을 주도하면서 중세사회는 근세 사회로 넘어간다. 끊임없는 대내적 혼란 속에서도 민족적 자각을 잃지 않고 고유의 민족전통 문화를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기까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지킴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앞에 가장 가깝게 다가와 있는 조선인들. 이들에게 있어 나라 잃은 설움과 말을 잃은 설움은 오히려 국가적 정치의식을 높이게 되면서 민족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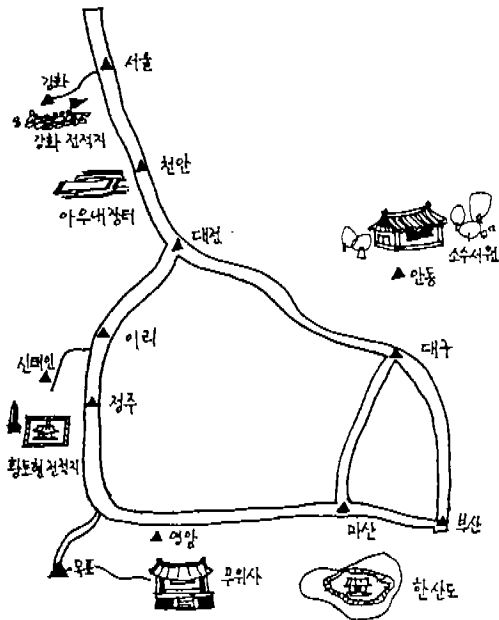
가. 목 표

잡은 내란 뿐만 아니라 나라 잃은 설움까지도 겪어내야 했던 조선인들의 삶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민족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나. 탐사로

강화전적지—아우내장터—황토현전적지—무위사

—한산도—소수서원



(1) 특 징

유난히도 많았던 외침과 내란으로 얼룩진 조선 시대의 삶의 현장을 살피기 위해 역사적 방황과 위기 속에서도 슬기롭게 때론 치절하게 극복해 냈던 현장들을 중심으로 탐사로를 제시한다. 그리고 한편으론 조선시대의 건축양식과 학문의 장을 엿볼 수 있는 곳도 함께 제시한다.

(2) 주안점

역사의 현장에서는 그 때 그 상황을 되새겨 보면서 민족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한다.

4. 분단—민족의 아픔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민족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국토가 분단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큰 혼란과 고난의 길목에 서게했다.
—아 —아 —잇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6월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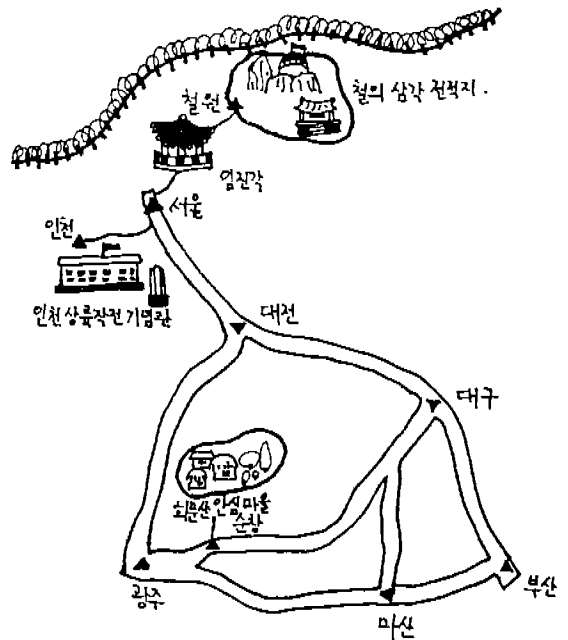
일 새벽 총성과 함께 시작된 서로가 서로에게 겨누었던 총뿌리는 끝내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으로 남겨 놓았다. 온 국토와 온 국민이 아파했고 지금도 남은 상흔은 북녘을 바라보는 눈시울속에 젖어 들어 있다. 그 분단의 현장 곳곳은 다름 아닌 민족의 아픔 그 자체로 남아 있다.

가. 목 표

체험해 보지 못했던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답사해 봄으로써 우리민족의 분단현실과 아울러 미래상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나. 탐사로

철의 삼각전적지—임진각—인천상륙작전기념관—회문산 안심마을



(1) 특 징

동족상쟁의 비극을 치르면서 전쟁의 상흔을 온 국토가 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격전의 현장지

를 중심으로 분단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탐사로를 제시한다. 전후의 발굴보존지역과 분단의 현장 그리고 낮과 밤이 좌익군과 우익군으로 교차되었던 마을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역사의 흐름과 의미를 깨닫게 해 줄 수 있다.

(2) 주안점

외세에 의해 분단된 국토에서 아무런 이념도 가지지 않은 채 이념 때문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린다 이름없이 사라져간 이들의 넋을 격전장에서 만나보면서 그리고 녹슬어버린 기차에 켜켜이 쌓여진 민족의 한을 지켜보면서 이념과 전쟁, 격렬과 민족의 동질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IV. 번영의 나라

삶의 터전은 땅이다. 이 땅위에서 인간은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길을 넓히고 건물을 세우고 첨단시설을 확충하고 개발함으로써 국토를 집약화시키고 과학화시킨다. 우리의 땅이 어떻게 이용되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간접시설과 산업시설을 탐사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뿐만 아니라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게 해 준다.

1. 공장의 불빛 -공단지역

조국근대화의 기치 아래 한 마음 한 뜻으로 경제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벗어나 점차 번영의 숲으로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도시의 모습이 바뀌면서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인 풍요로움까지 잠식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또 다른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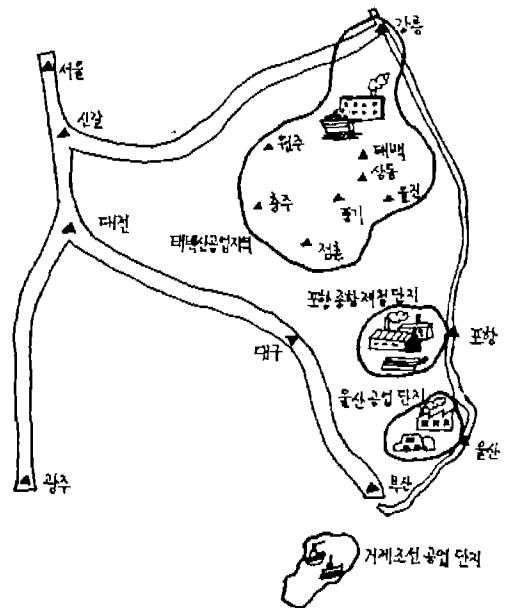
힘이 되었다. 세계로 미래로 우리의 꿈과 이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가. 목 표

산업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와 근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고 나아가 미래산업에 대해서도 조망할 수 있게 한다.

나. 탐사로

태백산공업단지 - 포항종합제철단지 - 울산공업단지 - 거제조선공업단지



(1) 특 징

광업, 공업, 조선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탐사로를 제시한다. 산업원동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에서부터 중화학 공업에 이르기까지 제시되어 있어 그 현장에서 직접 생동감 있는 국력의 원천을 실감할 수 있다.

(2) 주안점

공단이 조성되게 된 지형적, 입지적 조건과 산업특성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시대 상황과 산업발전의 단계도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서 사양산업과 미래산업 나아가서는 자신들과 미래와의 연계성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2. 민족의 동맥 - 고속도로

길은 사람들의 호기심의 표현이자 생활의 수단이었다. 그래서 길은 인류역사와 함께 발달하는 것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우리 나라는 고개와 오솔길을 중심으로 길이 발달되었었다. 그 고개 고개마다에는 삶의 모습들이 진하게 배여있어 아직도 많은 전설로 우리에게 친근감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개와 오솔길 들은 국토의 동맥으로서의 역할을 고속도로에 내어준다.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길은 국토를 청춘의 시기로 돌려 놓는다.

가.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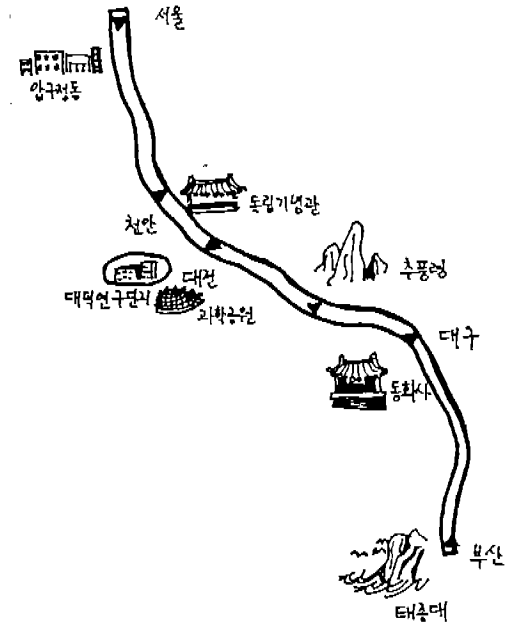
사회간접자본의 하나인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국토를 횡단·종단해봄으로써 국토와 민족, 산업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탐사로

압구정동 - 천안 - 대전 - 추풍령 - 대구 - 부산

(1) 특 징

1968년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1988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을 기점으로 부산에까지 이르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국토를 종단해 보도록 탐사로를



제시한다. 경부고속도로상의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도시를 탐방해 봄으로써 국토의 동맥구실을 하는 길이 도시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2) 주안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국토를 종단해 보는 것이지만 우리 선조들의 길이었던 오솔길이나 고개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곳곳에 얹혀 있는 전설속에서 선조들의 삶의 모습과 인간과 길의 관계의 의미를 유추해 보도록 한다.

3. 과학의 나라 - 첨단산업시설

인간의 욕망과 모험심은 과학의 발전을 낳고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한다. 인간의 꿈과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학문이 곧 과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학의 발전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도약, 발전하기 위해 첨단

산업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어우러짐은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가. 목 표

첨단산업 시설을 관람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과학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해 볼 수 있게 하고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비전도 갖게 한다.

나. 탐사로

과학공원·대덕연구단지 - 고리원자력발전소



(1) 특 징

첨단과학기술과 문화의 올림픽이 열렸던 과학공원과 인근의 한국의 실리콘 벨리로 불리우는 대덕 연구단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는 고리 지역을 연결하는 탐사로를 제시한다. 한국과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다.

(2) 주안점

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탐사인 만큼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지식을 가지고 임함으로써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첨단산업시설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여 보다 풍요롭고 인간적인 미래산업에로의 지향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

V. 그윽한 향기의 나라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한다. 그리고 각 민족이 만들어 내는 문화는 삶의 터에서 기인한다. 뚜렷한 사계절과 원만한 농선, 맑고 풍부한 물 속에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삶을 펼쳤던 우리민족은 나름대로 독특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삶의 모습속에서 여유와 맛과 멋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은 민족의 정신적 단일성과 문화적 우위를 지켜온 원동력을 이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준다.

1. 숨겨진 문화유산 - 원림의 미학

우리의 선조들은 전망이 좋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면 여지없이 정자를 세우고 휴식처로서 이야기마당으로서의 공간을 마련했었다. 인위적인 조경작업보다는 숲과 계곡을 배경으로 적절한 위치에 자연의 질서를 거슬리지 않는 인공미를 절묘하게 연출해 내면서 독특한 정자문화를 꽃피웠었다. 특히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에 발달한 정자와 원림문화는 사대부들이 정치역정 속에서의 한을 자연과 주고 받으며 사랑과 애정으로 키워낸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인 것이다. 끊임 없는 반성과 확고한 양심으로 자연을 얼르고 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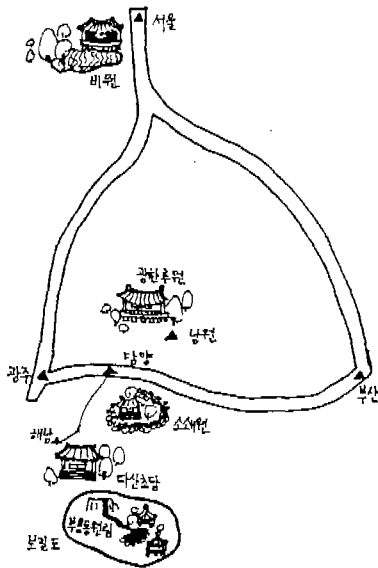
하며 소중하게 키워낸 문화인 것이다.

가. 목 표

자연미와 인공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원림을 살펴봄으로써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고뇌극복의 삶의 방식과 자연과의 조화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나. 탐사로

비원 - 광한루원 - 소쇄원 - 다산초당 - 부용동원림



(1) 특 징

우리나라 조경문화는 15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시대 정원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원이었던 비원 외에는 인공적인 정원의 형태보다는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고 자연귀의성

이 강한 원림에 가까운 형태를 띤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민간정원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

(2) 주안점

정원을 조성했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조성자와 조성배경을 서로 관련지어 살펴보게 한다. 자연과의 조화로움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조성해 갔는지 조성자의 마음이 되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자의 건물 그 자체를 유심히 보는 것 보다는 정자마루에 걸터앉아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았을 때 느낄 수 있는 맛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 예술의 터전 - 가사문학의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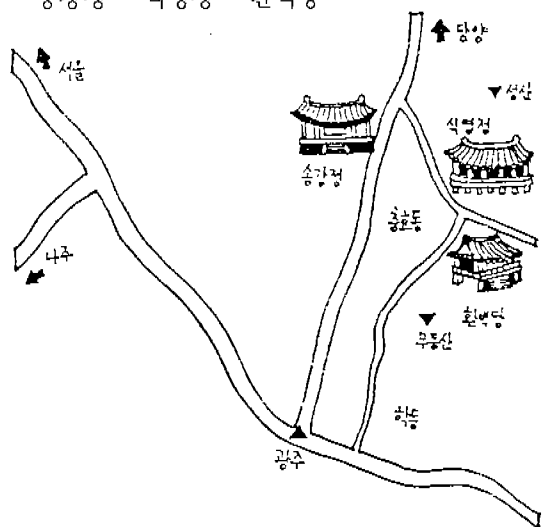
산 좋고 물 맑은 곳이면 이를 벗삼아 맑은 시심의 세계로 들어가 풍류를 즐기곤 했던 우리의 선조들. 그 중에서도 우리 국문학사에 우뚝 솟은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이 주옥같은 작품들을 지을 수 있었던 자미탄 강가의 가사문학의 터는 지금도 그 옛날의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채 남아 말없이 풍류를 읊고 있다. 푸른 시내 환물결이 정자안을 돌렸으니/천손의 비단 폭을 그 뉘가 베어내어/이었는데 펄쳐 놓은 듯 야단스런 경치로다/산 중에 달력없어 계절을 모르더니/눈 앞의 풍경이 사철따라 전개되니/듣고 보는 일이 모두 다 선계로다

가. 목 표

작품의 터전이 되었던 장소를 직접 찾아 봄으로써 작품속의 예술적 묘사를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탐사로

송강정 - 식영정 - 환벽당



(1) 특 징

옛부터 국토 곳곳이 예술가들에 의해 되살아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가시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이 가시문학의 터로 삼았던 곳을 중심으로 탐사로를 제시한다.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무대가 되었던 송강정, <성산별곡>을 썼던 식영정, 성산별곡에 나오는 조대가 있는 환벽당에서 불우한 시절을 시대의 명작을 산출해 내는 시절로 바꾼 그의 낭만과 호기를 느껴 볼 수 있다.

(2) 주안점

아름다운 풍광이 던져주는 눈맛에서 그치지 말고 작품과 그 작품을 썼을 당시의 송강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흥으로 토해냈던 그의 작품들을 그 터전에서 하나 하나 음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맛과 멋 그리고 여유

각 민족마다 전통의 문화유산과 함께 그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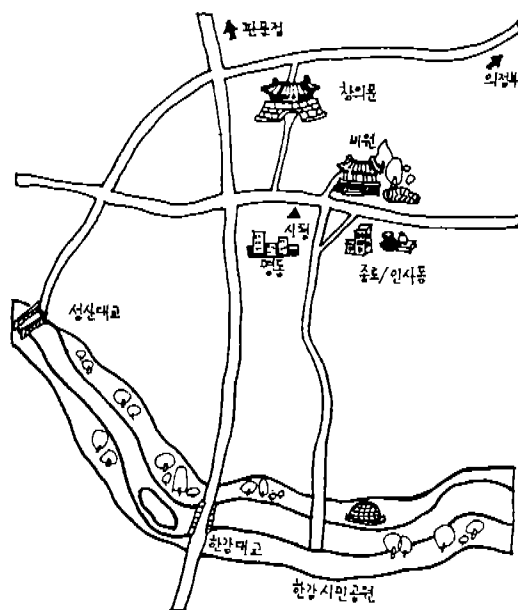
서 생활하는 사람 들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 우리도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생활의 멋과 맛의 모습을 갖고 있다. 우리 민족은 한을 멋과 맛으로 승화시켜 깊은 삶의 궤적과 향기를 뽐어내는 서러움의 미학을 알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민족의 정신적 단일성과 문화적 우위를 지켜온 원동력이었다. 처절한 억눌림의 기억이 아닌 인간 근원의 삶을 슬쩍 비껴 표현하는 절묘한 맛과 멋의 미학이 우리에게는 늘 있었다.

가. 목 표

우리 선조들이 펼쳤던 생활의 낭만과 여유의 모습을 찾아봄으로써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맛과 멋속에서 현재의 여유와 낭만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나. 탐사로

창의문 - 종로 · 인사동 - 명동 - 한강



(1) 특 정

조선시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던 서울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모습들의 일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탐사로를 제시한다. 특히 문화와 유행이 숨쉬던 그 창조의 세계를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가능한한 적은 인원이 참여하여 답사도중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전의 낭만과 오늘의 달라진 모습을 생각해 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주안점

문화가 형성된 시대상황을 이해하고 오늘날 남겨진 모습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또한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 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남겨진 문화유산 찾기 보다는 그 시대의 멋과 맛을 향유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깊이 느껴볼 수 있게 한다.

Ⅵ. 꿈의 나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국토속에도 존재한다. 지금의 국토가 미래의 국토일 수만은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모습들은 땅의 모습마저도 변화시킨다. 따라서 변화되어가는 땅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국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세계속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해 준다.

1. 위협하는 오늘 - 환경오염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인간의 환경파괴에 의한 환경의 변화는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여파는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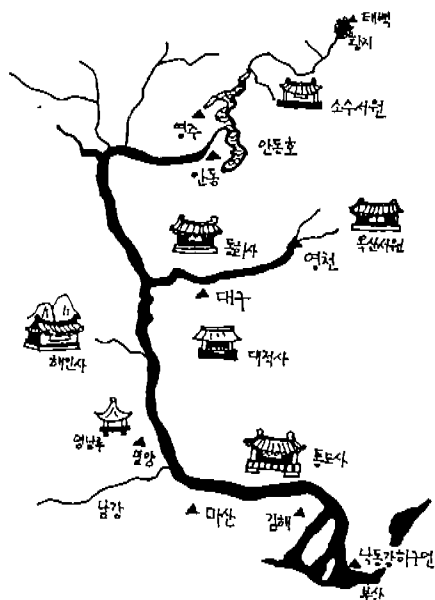
메랑처럼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온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뒷문밖에는 갈잎의 노래/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맑고 싱싱한 자연을 읊었던 이 노래는 지금은 단지 노래일 뿐이다. 온 산하는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을 발하며 그 푸르름과 빛, 향기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자연에 대한 외경심과 겸손만이 우리를 다시 본연의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가. 목 표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훼손되어 가는 오염의 현장을 탐사해 봄으로써 자연보호의 중요성과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실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게 한다.

나. 탐사로

황지 - 안동호 - 낙동강하구연



(1) 특 징

온 국토가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2번째로 가장 긴 강이고 우리민족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낙동강의 오염실태를 그 근원지에서부터 추적탐사할 수 있도록 탐사로를 제시한다. 가능하면 장소의 특징에 따라 탐사방법을 달리 계획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2) 주안점

낙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면서 다른 지천들과 오염정도를 비교해 보고 오염의 원인을 분석해 본다. 그리고 아울러 낙동강을 무대로 아름답게 펼쳐졌던 문학작품을 떠올리면서 되살려 놓아야 할 모습도 찾아 볼 수 있도록 한다.

2. 미래의 땅-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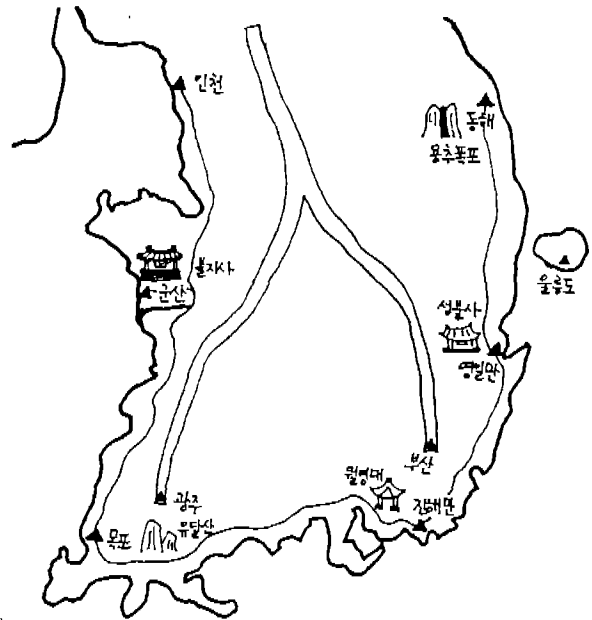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맑고 푸른 바다는 미래의 새로운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지금도 동해, 서해, 남해는 각기 특징을 지닌 채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 그리고 세계로의 도약의 발판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해양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고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이제는 국토는 땅만이 아니다. 바다는 이미 땅의 연속선상에 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미래의 땅은 다름 아닌 바다인 것이다.

가. 목 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무한한 자원보고이자 새로운 삶의 터전인 바다를 살펴봄으로써 국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해양문화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한다.

나. 탐사로

인천 - 군산 - 목포 - 진해만 - 영일만 - 동해 - 울릉도



(1) 특 징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삼면의 바다를 항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탐사로를 제시한다. 해양문화가 주도할 미래의 세계에 환태평양기의 관문으로서의 역할과 새로운 해양문화의 축을 형성할 수 있는 항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고 아울러 섬을 땅의 연속선상에 놓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국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2) 주안점

우리나라와 바다와 세계 그리고 미래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바다를 휴양지로서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땅으로 소중하게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 고 은. 1987. 「절을 찾아서」, 서울:책세상.
- 김 정배 외. 1993. 「관광자원론」, 서울:형설출판사.
- 김 홍운. 1992. 「관광한국지리」, 서울:형설출판사.
- 박 동현. 1991. 「구름에 달가듯이」, 서울:샘터.
- 박 준홍. 1991. 「주말여행」, 서울:수문출판사.
- 박 태순. 1983. 「국토와 민중」, 서울:한길사.
- 뿌리깊은 나무. 1992. 「한국의 발견」, 서울:뿌리깊은 나무.
- 유 홍준. 1993.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창작과 비평사.
- 이 경재. 1993. 「서울 정도 600년 1~4」, 서울:서울신문사.
- 이 태원. 1990. 「즐거운 교육여행」, 서울:청림출판.
- 이 형권. 1993. 「문화유산을 찾아서」, 서울:매일경제신문사.
- 임 한수 외. 1992. 「관광지리:한국편」, 서울:백산출판사.
- 정 동오. 1991. 「한국의 정원」, 서울:민음사.
- 최 성민. 1992. 「그곳에 다녀오면 살 맛이 난다」, 서울:심지.
- 최성민. 1993. 「섬 섬 섬」, 서울:한겨레신문사.
- 최 정호 편. 1993. 「산과 한국인의 삶」, 서울:나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홍 시환. 1991. 「한국의 동굴」, 서울:대원사.